

제일모직, 성균관대 연구센터 설립

2006년 2월 완공 목표로 100여평 사용 ... 난연·나노·광학분야 연구

제일모직은 8월10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제진훈 사장과 최해탁 부사장, 성균관대 신명철 부총장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모직 첨단소재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제일모직 첨단소재 연구센터는 200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제2종합연구동의 약 100여평에 들어선다.

친환경 난연, CNT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광학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은 “첨단소재 연구센터 설립은 제일모직이 차세대 주력 연구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난연, 나노, 광학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일모직은 1999년 모니터 등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비할로겐 난연 AB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현재 난연 ABS 세계시장에서 45%를 점유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12>